

광양시 “이젠 전세사기 걱정 마세요”

베테랑 공인중개사 6명
주거 안심계약 상담사 위촉
계약 과정 전반 무료 상담

광양시가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갭통전세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주거 안전 강화에 나섰다.

시는 부동산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문 공인중개사가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내에서 중개업 경력 3년 이상이며, 중개사고나 결격 사유가 없는 공인중개사 6명을 ‘주거 안심계약 상담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상담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등 서류 작성 및 분석 방법 ▲부동산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주변 시세 확인과 적정 가격 상담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다.

특히 계약 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꼼꼼히 짚어줘, 전세사기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상당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 즉시 담당자가 신청인 거주지 인근의 주거 안심계약 상담 중개업소를 안내한다. 이후 상담은 해당 중개업소와 신청인 간 일정 조율을 거쳐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전 단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해 주는 이번 서비스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올해 49억여원 들여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추진
부식비 지원하고 시설 개선

고흥군이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49억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운영과 시설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돋우고 폐쇄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등에 34억5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 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5억240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이용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개소별 경로당 운영지원은 등록 회원수와 일평균 이용자 수, 난방유형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운영비 연 118만원~198만원 ▲난방비 연 146만원~168만원 ▲부식비 연 38만원~67만원 ▲양곡은 연 7포~13포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혹한기에 대비해 상반기 난방비를 운영비·부식비와 함께 1월 초에 신속하게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난방·운영·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물품 구입 및 수리, 입식 테이블 지원 등에 3억2800만원을 투입한다.

고흥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경로당은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고 하루의 온기를 느끼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증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장미산업화 산·학·관 힘 모은다

전남과학대·청화팜과 업무협약

곡성군이 장미산업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전남과학대, 주식회사 청화팜과 함께 ‘곡성군 장미산업화 및 RISE 연계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곡성세계장미축제’의 브랜드 파워를 6차 산업으로 확장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미 육묘 및 기능성 소재 연구(R&D) ▲시장성 있는 시제품 개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장미산업의 전(全) 주기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과학대는 장미 소재 연구와 함께 관련 분야 학생들을 지

역 정주형 인재로 양성하고, 청화팜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로 산업화의 물꼬를 튼다. 곡성군은 이를 뒷받침 할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 기관장이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장미 세 속이를 하나의 화병에 꽂는 ‘화합의 꽃병’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행정, 교육, 기업이 하나 되어 ‘곡성 장미산업’이라는 큰 꽃을 피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곡성 장미가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노하우, 행정의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장미 육묘장 조성 및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구례군 친환경농업교육관 2년 공사 증축 재개관

농업인 등 100여명 참석 준공식

구례군이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간의 증축 공사가 완료된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준공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돼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례군은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관 증축을 추진했다.

구례군은 이번 친환경농업교육관 준공을 계기로 맞춤형 농업 교육을 확대 운영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이번에 증축된 친환경농업교육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1층에는 60석 규모의 소강의실, 2층에는 135석 규모의 대강의실과 휴게시설을 갖춘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농업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농업교육관이 농업 인의 역량을 키우고 구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구례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번 친환경농업교육관 준공을 계기로 맞춤형 농업 교육을 확대 운영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여수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주민설명회

여수시가 26년 만에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총 27회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수립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선·간선 환승체계 개편 ▲불합리한 노선 개선 및 급행버스 도입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 콜버스 노선 신설 ▲무료 환승 횟수 확대 ▲노선번호 체계 정비 등이다.

자세한 개편 내용 및 주민설명회 일정은 여수시

정 누리집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노선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이전에 돌산 지역을 우선 시범 개편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보완 검토하여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

다음 달 18일까지…100명 경품

보성군이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18일까지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닌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기간 중 보성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와 함께 3만원 상당의 지역답례품이 제공돼 기부자는 최대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벤트 종료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모바일쿠폰 1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추첨은 내달 19일에 진행되며, 당첨 경품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발송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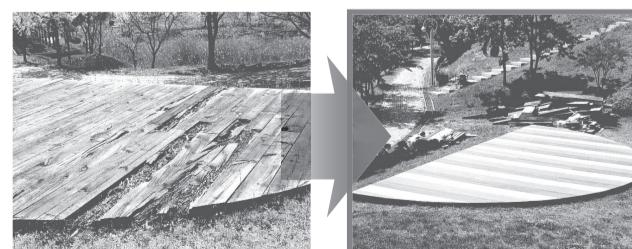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